

제21대 국회의원 도봉 을 선거구

책자형 선거 공보

도봉산이
낸 인물

무소속

8 최순자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21대 국회의원선거(도봉구 을)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8	무소속	최순자	여	1954.04.09. (66 세)	(주)우정트 래킹 여행사 대표이사	서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적(1999. 3.2.~2002. 1.2.)	(전) 제15, 16대 국회의원 선거출마 (현)우정산악회 회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33,236	33,23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병역의무없음	해당없음

3.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채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채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채납내역		
		채납액 누계	현 채납액	
계	0	0	0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벌금 2,000,000원 2018. 05. 18 재물손괴 벌금 2,000,000 2019. 05. 22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1,000,000원 2019. 09.18
후보자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해당없음			
직계존속	해당없음			
직계비속	해당없음			

4. 소명서

명예훼손은 사실 증거가 없거나 사실을 잘못 알고 문자를 보내 명예훼손 당함
그리고 거짓이 일상인 여행업 업계인데 고소 당했을때 사실대로 말해 벌금냄

최순자의 삶 크게 쓰임을 받으려고 그토록 시련의 연속이었나 봅니다

충남 당진의 가장높은 아미산 밑에서 태어나

중1때 어머니를 여의고 과학 천재였기에 아무도
강요한 것도 아닌데 백석꾼 살림 맡고 4 동생을 키웠습니다.

그 소중한 엄마 죽었을 때 2살이던

독신인 내겐 자식인 막내동생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잃고 피울음을 울었습니다.

미투도 겪었고, 간통사건으로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욕도 겪었습니다.

정치는 그 불공정에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절망속에 단식하며 생사를 고민했습니다.

IMF를 지나며 도봉산으로 모이는 전쟁 겪고,

가난 겪고, 배우지 못한 전우세대의 나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산 이들의 우정산악회로 사랑과 봉사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고 그들에게 대한민국 구석구석 구경시키고 따뜻한
밥 한끼 대접하는 보람으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것은 도봉산이 만들어 내는 인물이었고
나라의 운명과 맞다고 감히 낙관합니다.**

도봉의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최순자는!!

백년에 하나 나오는 지혜를 타고 났습니다.

1%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무관계 제외) 억만금을
준데도 비겁할 수 없는 인격을 타고 났습니다.

어느 분야든 보통사람도 2등은 만드는 리더십을 타고 났습니다.

이 세상에 한 발을 내디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휴머니스트입니다.

이토록 탁월한 인재인 최순자를 놔두고 300명중에
1명일 뿐인 인물을 자기 대신 국회로 보내는 어리석은
선거를 또 할 건가요.

나와 나라를 위해 최순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도봉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제도개혁과 민생살리기

급진 제도 개혁과 경제 민생살리기

좌파형 사람은 아닙니다. 중도이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만연돼 있는 부조리 부패 불평등에 대해선 그것이 비록 독재적일지라도 진보의 급진개혁 지지합니다.

허나, 진보세력의 맹점인 경제 보통사람도 2등 만드는 리더십과 현명한 판단으로 경제에 관한 한 분배만을 고집하지 않는 실사구시로 경제선진국 발판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지난한 경제기반, 김대중 대통령처럼 다시 살리기 틀림없는 성공 자신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 처럼

프랑스의 **마크롱** 처럼

우리사회 부조리 개혁 할수있는 사람! "최순자"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로 왕복...관광한국과 도봉구를 관광객으로 넘쳐나게

최순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유난히 물가 비싸고 민족주의 강한 일본은 경제불황 20년에 아베총리가 관광청을 만들고 비자 없애고 관광지 단장하고... 숙고하여 지금은 한국인 중국인 할 것 없이 일본으로 몰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최순자는 K-POP에 문화예술까지 날리는 대한민국이니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까지 늙기 전에 꼭 한번은 한국에 놀러오는, 세계인이 몰려오도록 관광대국 만들겠습니다.

눈이라도 올라치면 알프스 히말라야 뺨치는 도봉산, 북한산을 옆으로 하늘 높이 케이블카를 설치, 1시간쯤 천천히 왕복 횡단하는 서울의 명물로 만들고, 경로 우대하여 어른들 부담 없이 지금 등산가듯 그 케이블카를 즐긴다면 우리는 90살 살 것을 100살 살게 수명연장될 것이며, 도봉구는 관광지로 명성을 날리고 굴뚝없이 외화도 벌고 환상의 도봉이 되게 최순자가 국회의원 되면 환경단체를 설득하겠습니다.

우이경전철 연장선 + 동북선 (신설동-우이-방학-상계-왕십리)를 속행할수있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우이-방학 -상계-왕십리) 전철공사를 코로나 사태후 대공항극복 사업으로 가장먼저 진행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도깨비 시장이 인산인해로 명성을 날리고 돈잘 벌게 물고기를 주는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도록 물건 사주는것보다 도움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1호선 KTX(SRT), GTX 지하화 속히 이루어지도록

국회의원 만들어 주십시오! 국가경제에 크게 지장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고 당당한 위상으로 최신형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초라하고 단절 됐던 도봉을 더욱 아름답고 탄 나라세상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남녀불평등을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같은 능력이라면 의무도 책임도 혜택도 남녀 동등하게 나눌 수 있어야 세계 최저의 저출산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자도 군에 입대함으로써堂堂하게 모든 직업직책에 30%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남성에게 육아휴직 당연할 것이고, 출산을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낳아 놓은 아이가 적어도 안쓰럽지 않고 잘난 사람들에게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일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 돼야 비로소 마음 놓고 아이를 낳겠지요.

그래야 우리 어른세대의 연금등도 고갈 되는일 없을 것입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개혁의 진통

선거법

패스트 트랙으로 급조된 선거법,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 중 부작용으로 혼란한 선거는 21대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18세 이상의 선거권부여, 다양한 국민의견 반영의 정당제의 장점 살리기 등 민주주의가 한발 발전할 것입니다.

공수처법

검찰개혁은 노벨과학상이 안 나오는 나라, 언론의 훌륭한 비판 능력이 없는 이유 등 학력인플레가 지금은 법조인 포화로 인재의 무덤이 되고 있는 법조계 - 사회의 최고위층을 이루며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그것이 비록 좌파독재적 발상일지라도 당분간 공수처 잘 운영해 평범한 직업 수준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인재가 법조계로만 몽땅가서 정부 국회 기업 할 것 없이 그 직책을 만들어 군림하는 일없이 다양한 직군으로 실력 발휘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4전5기 노리는 도봉구의 여걸 최순자 씨

우정산악회에서 축적한 파워로 2년후 총선 무소속 돌풍 준비

1996년과 1998년 지방선거 무소속 도봉구청장 후보 출마, 1998년 제 15대 총선 무소속 후보 출마, 2002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도봉구청장후보 경선 출마...

지금은 활동에서 우정산악회를 운영하고 있는 최순자(여·56) 회장의 화려한 입후보 경력이다.

최근 8년간은 조용히 지내왔지만 그녀는 2012년 총선에 4전5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것도 무소속으로... 지금까지 숱한 경험을 통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것인가?

처음 세 번은 무소속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마지막 구청장 선거에 한나라당을 택해 나갔지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정당에 회의를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2012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반드시 이기겠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지난 9년간 운영해왔던 우정산악회를 통해 자신이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원천이었다.

"저는 산행홍보지에 칼럼을 늘리고함으로써 정치활동을 병행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무명이었던 제 개인



▲ 우정산악회 사무실에서 오뎅이 같은 독심으로 칼을 갈고 있는 최순자 회장

지도를 높일 수 있었지요. 산행에 한 번이라도 와서 저를 본 사람이 10만 명쯤 되니까 비록 타지역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선거 때는 도봉구 주민들에게 저를 홍보할 조짐을 만들어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녀는 2년 후 거대 정당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반드시 당선되겠다고 자신하면서 안 되면 6년 후 또 다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한나라당을 떠나 열린우리당에도

갔지만 2008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서류조차 받아주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이유는 그녀가 돈이 없어서였다고. 게다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그녀를 주저앉혔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열린우리당을 떠나 아예 총선을 목표로 자신이 만든 우정산악회에 전념하기로 했고, 지난 2008년 기회가 왔지만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운

채 4년을 더 기다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벽이 너무 높아요. 정당의 비례대표도 아주 유명한 여성이어야 하든지, 여성단체에서 보낸 사람이든지 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진짜 인물은 안 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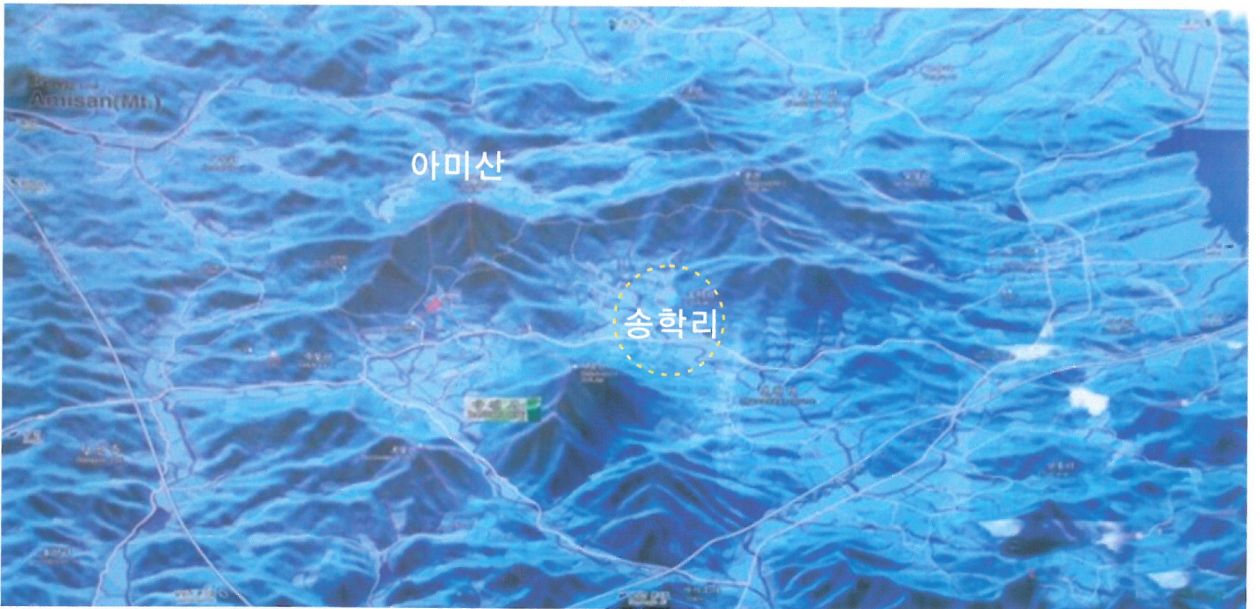
최 회장은 1954년 4월 9일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세경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외과에서 대학을 했다. 산악회 일로 비바 졸업논문을 쓰지 못해 지금 4학년 재적 상태라고.

"저는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사시를 패스한 것도 아닌 그냥 아줌마죠. 하지만 서울·경기지역 1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리더로서 반드시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도봉구 청5동 도봉구민회관 부근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벽에 '오늘도 대통령을 꿈꾸는 여자'라는 글씨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국회의원은 그녀의 최종목표가 아니었다. 과연 그녀는 2년 후 대선으로 건너갈 길잡이 길을 놓을 수 있을까?

(허성수 기자 sungshu@haramail.net)

자신이 보수적이라 한나라당 형이라고 생각 입당 하였다가 2002년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몽준 의원을 지지 노무현대통령으로 단일화되 열린우리당에 입당 했습니다. 東北日報 9월 30일자 신문기사



최순자 출생지: 충남 당진군 면천면 송학리

도봉구에 사는게 챔피언 해요!!

우리동네는 4년마다 치열하게 경쟁해 국회의원을 뽑아왔지만 3, 4번 재임 후엔 어김없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한번도 국회의장, 장관, 총리로 올라서는 인물도 못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나라엔 법도 만들고 예산 감사도 하고 필요한 300명 국회의원이지만 아름다운 도봉산을 품고도 소위 스타벅스도 돈 안돼 안 들어왔던 25개 구청중에 가장 가난한 동네가 됐어요. 도봉구에 산다는게 부끄러운 지경이 됐습니다.

인물 있을때 경상도, 전라도로 뭉치듯 도봉구로 뭉쳐서 도봉을 가장 아름다운 자치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동네 외국인 관광객 넘쳐나는 진짜 신나는 도봉구를 만들어 봐요.

좌우로 쪼개져 서로 욕하고 얼굴 붉히는 세상!
본인을 위해 도봉구를 위해, 하나로 뭉쳐서 즐거운 인생, 행복한 노후, 살고 싶고 자랑스러운 도봉구 만들어 보세요

동학처럼 3.1운동처럼 떨치고 일어나 나와 도봉구와 나라를 살려 냅시다.

전라도 경상도로 뭉쳐 여당 야당의 뿌리인 국회,

**이번엔 도봉산을 기준으로 뭉쳐
우리 함께 인물 만들어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86세 엄마 동생 외삼촌에게 오랜만에 전화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충남 당진 연천면 송학리 소리벌이라는 동네,
당진에서 제일 높은 아미산 자락 아무래도 거기가 명당인가
보라고 6, 7세에 떠난 그곳을
선거 끝난 후에 가보고 싶다 했더니
외삼촌은 대뜸 당진에 부친의 산소가 명당이고
출생지가 명당이라는데... 인물난다는 운명학을 믿고 싶어집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생전에 재산 절반을 탕진한 제 남동생
이 그저 도박으로 불효해 죄스러움에 아버지가 신이 되어
도박을 그만 둔 정도로 이해했지요. 아버지 산소가 명당이고
출생지가 명당이면 큰인물 되리란 기대를 합니다.

쿠테타 세력이 부하에게 총을 한 자루씩 주어 정권을
찬탈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 그건 한 자루의 총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만들고 대통령도 만드는 그 총을 잘
싸서 도봉구 출신 인물 모두 떨치고 일어나 만들어 봐요.

날 보러와요~! 010-2211-6386

도봉산에서 북한산 향로봉까지 케이블카로 왕복...!
관광대국 만들겠습니다.

세기의 현명함과 1% 도 거짓없고 억만금을 준대도 비견 할수 없는
최순자 연설대담합니다

4월 2일~13일 매일 10시 ~ 12시 도봉산 입구



무소속으로 당선돼
정당의 대통령 경선에
나서겠습니다

15, 16대 총선출마
(주)우정트레킹 여행사 대표이사
우정산악회 회장

도봉을
무소속

최순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오전 10:00 ~ 12:00까지
도봉산 입구에 연설방송차 대고 당신을 기다립니다.